국제로타리 3710지구, 김장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국제로타리 3710지구 7지역 대표 박주식 회장과 회원 50여 명은 지난 6일 광주 말바우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봉사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봉사는 '우리 함께 선행을'이라는 국제로타리 메시지와 함께 국제로타리 3710지구 7지역 합동봉사로 이뤄졌다. 이날 회원들은 총 1000kg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아 포장하고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 이번 김장봉사에는 한빛로타리 강창숙 회장과 회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농심천심 아침밥먹기 캠페인'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5일 북광주농협, 임곡농협 직원들과 함께 광주동성고·광주여상을 방문해 쌀국수 1200개를 전달하며 '농심천심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실천했다. 〈사진〉

농협광주본부는 이날 농심천심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통해 동성고와 광주여상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지역사랑 실천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농협광주본부 관계자는 "농업인과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원로배우 윤일봉 별세

1970~80년대 스크린을 누비던 원로배우 윤일봉이 8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8일 영화계에 따르면 발레무용가 윤혜진의 아버지이자 배우 엄태웅의 장인인 윤일봉이 이날 세상을 떠났다.

윤일봉은 1955년 민경식 감독의 '구원의 애정' 주연으로 데뷔한 뒤 '애원의 고백'(1957년), '행복의 조건'(1959), '사랑이 피고 지던 날'(1960) 등에 출연하며 간판 멜로 배우로 사랑받았다.

이후 '폭풍의 사나이'(1968), '여자 형사 마리'(1975), '초분'(1977) 등 영화에서 폭넓은 배역을 소화했고, '내가 버린 여자'(1977), '내가 버린 남자'(1979), '바다로 간 목마'(1980) 등에서는 젊은 여주인공과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중년 남자를 연기했다. '애하'(1967), '여자의 함정'(1982), '가고파'(1984) 등 대표작도 남겼다. /연합뉴스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적십자사에 쌀 1000kg기탁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지부는 지난 4일 400만 원 상당의 쌀 1000kg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전달했다. 〈사진〉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지부는 지난달 7일 제14대 오웅필 회장 취임식을 기념해 쌀 화환 101포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적십자 급식소나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박재홍 회장은 "오웅필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중한 나눔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오웅필 회장은 "추운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GIST AI융합학과 대학원생 구성 '네 번째 레슨' 팀 국제 AI 대회 '2025 포케에이전트 챌린지' 준우승

김경보 권은주 김유진 박상연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융합학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네 번째 레슨' 팀(석사과정 김경보·권은주·김유진·박상연 학생)이 인공지능 학회 '뉴립스'가 주관한 국제 AI 대회 '2025 포케에이전트 챌린지'에서 '대전 트랙: 포켓몬 1세대 규칙 부문' 준우승을 차지했다.

'포케에이전트 챌린지'는 포켓몬 게임의 배틀 방식을 그대로 구현한 환경에서 AI끼리 대결을 시키며, AI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는지를 평가하는 국제 대회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게임 AI의 승률 향상을 넘어 데이터가 적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강화학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50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박종현

제50대 한국기자협회장에 1번 박종현〈사진〉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협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알림톡과 문자 투표를 활용해 직선제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박종현 후보가 1만 1280명의 유권자 가운데 3,782표를 득표해 제50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유권자 1만 1280명 중 6565명이 참여해 58.2%를 기록했으며 구영식 후보는 2783표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다.

박종현 당선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자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2000년 세계일보에 입사한 박 당선자는 워싱턴특파원, 외교안보부장, 산업부장, 사회2부장 등을 역임했고 2023년 12월 제49대 기자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해 회장직을 수행해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KBS 뉴스 930 45 KBS 뉴스(광주)	30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	10 동행(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45 베베핀(재)	00 닥터 365 05 영민씨와 대단한 친구들(재) 50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히트레이서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한글용사 아이야(재) 55 2시 뉴스 외전	00 투데이(재)
2	00 KBS 뉴스 10 옐로뮤직페스티벌-(2025 고흥유자축제 축하쇼)			00 뉴스브리핑
3	00전국을 달린다(재) 1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린다의 신기한 여행 2(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세 개의 시선(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라이즈맨 2 15 그라운드크루 토토 3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트로트 클라쓰 3	00 SBS 오뉴스 30 꾸러기 탐구생활(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00 생방송 투데이 5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일일드라마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셀럽병사의 비밀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스모킹 건	00 극한84 스페셜	00 한 번 더, 우리들의 발라드 에필로그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45 아이 러브 스포츠	20 특집 PD수첩	4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1	30 영상앨범 산(재)	10 스튜디오 K	20 특집 100분토론	
12	00 KBS네트워크특선 문화스케치(재) 50 생활의 발견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MBC 뉴스 25	05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재)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재)
06:1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슈퍼윙스 슈퍼콤보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07:30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지구 영웅 번개맨(재)
08:50 세상을 비집고 시즌3(재)
09:20 자이언트 펭TV(재)
09:40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귀하신 몸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재)
15:10 고향민국(재)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재)
16:30 지구 영웅 번개맨(재)
17:00 페파 피그
17:10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
17:50 자이언트 펭TV(재)
18:10 EBS 뉴스
18:30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19:20 고향민국
19:50 극한직업(재)
20:40 세계테마기행 〈극야의 왕국 북유럽 꿈꾸는 노르딕 라이프〉
21:35 한국기행 〈7남매의 고사리콩국〉
21:55 건축탐구 - 집 〈황혼의 집〉
22:45 특집 위대한 유산 - 동아시아 〈작은 무대, 큰 서사- 포대희 전통공연의 힘〉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클라우스 피베크 〈헤겔〉 3강 정신현상학 (2) 절대지로의 여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9일 (음 10월 20일 壬子)

☎ 010-9790-8237

子 36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는 대응력이 약화되리라. 48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60년생 유동성이 강하니 탄력적으로 대처해야겠다. 72년생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84년생 원하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96년생 투명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38, 70

丑 37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49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이다. 61년생 분명히 해둬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73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를 뒤로하고 생산적인 판국으로 접어들겠다. 85년생 기회는 있지만 달갑지 않을 것이다. 97년생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 행운의 숫자 : 35, 69

寅 38년생 변화를 꾀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현재의 위치에서 강구하라. 50년생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62년생 분위기나 겉모습에 현혹된다면 큰코다칠 수도 있다. 74년생 제3자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86년생 이미 쏘아 놓은 화살이다. 98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하라. 행운의 숫자 : 61, 93

卯 39년생 이채로운 길상을 띠고 있으니 기대해 볼 만하다. 51년생 거품만 무성할 뿐이고 실속이 약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63년생 시기를 확실히 맞추는 것이 매우 중하고 결정적이다. 75년생 마음을 빼앗긴다면 빠져 나오기 힘들다. 87년생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99년생 뜬구름 잡으려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3, 92

辰 40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52년생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야만 하느니라. 64년생 센스 있게 대처하고 재치 있게 판단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76년생 위기를 기회로 급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88년생 천천히 하는 편이 완벽함을 도모하기 쉽다. 00년생 최소한의 요건에 맞추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42, 68

巳 41년생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다. 53년생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65년생 소홀하다가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 77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89년생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자. 01년생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57

午 42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4년생 소강상태하에 놓여있는 기존의 국면을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66년생 굳이 결부시킬 필요까지는 없겠다. 78년생 형평성 있는 시각이 현명한 판단을 낳으리라. 90년생 진귀한 기회이니 수용하자. 02년생 가시 없는 장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0, 80

未 43년생 시간을 끄는 지혜보다 신속한 추진력이 필요한 때이다. 55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67년생 한번에 한정된 것이니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 없다. 79년생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 91년생 판단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결과는 장기간 영향을 미치겠다. 03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37, 63

申 44년생 한번 만에 끝낼 일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56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목적지에 무난하게 진입하리라. 68년생 절대로 무리하지 않게 조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80년생 찬스란 얻기는 어려우나 놓치기는 쉬운 법이다. 92년생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04년생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44, 86

酉 45년생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덫에 걸려드는 폐해가 있을 것이다. 57년생 절제한다면 성숙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69년생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도다. 81년생 전혀 실속이 없으니 빨리 청산할수록 이익이다. 93년생 의외의 길사가 보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05년생 이대로라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03, 71

戌 46년생 어떠한 경우라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58년생 시종일관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고역이 될 것이다. 70년생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본다면 쉽게 합치하리라. 82년생 확신을 갖고 한 방 날려도 될 시기이니라. 94년생 지나치다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06년생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43, 76

亥 47년생 생각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59년생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차제에 분명하게 분리해 두는 것이 편하다. 71년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되느니라. 83년생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95년생 유혹을 뿌리치고 매 한 가지로 나아가자. 07년생 낮은 자세로 임하라. 행운의 숫자 : 39, 54